

권선지로가



[해제]

이 <권선지로가>의 내용은 집을 짓되, 오행(五行)으로 주춧돌을 놓고 인의예지(仁義禮智)로 기둥을 세우고 삼강령(三綱領)으로 상량을 엮고, 팔조목(八條目)으로 도리를 엮은 도덕의 집을 지어서 인문(仁門)과 의로(義路)를 널리 닦자는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서 중국 성현의 집을 찾아서 구경하고 후생들에게 이런 집을 세우기를 권하고 있는 가사이다. 이 두루마리의 <권선지로가>는 앞의 <도덕가>에 비해서 어구의 앞뒤가 서로 바뀌고 변한 단어도 나온다. 한 예로 <도덕가>에는 ‘따로 잇다’가 <권선지로가>에서는 ‘다르도다’로 되어 있다. 또한 <도덕가>에서 빠진 어구는 괄호로 보충했다. <권선지로가>의 필사 원본은 위의 [잡사]의 <도덕가>가 아닌 듯하다. 필사지의 지질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며 작품의 서두 앞에 글씨의 체가 다른 ‘김종숙이’라는 펜으로 쓴 이름이 있으나 필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가사는 “어와벗님نيا”로 시작된다.

[원문]

권선지로가

어와 벗님نيا 집구경 가즈셔라
 집이야 만타마는 차자갈집 다르도다
 봉황디 황학누는 속사씨 구경체요
 낙성디 악양누는 속직씨 구경체나
 우측에 비겨셔셔 디가를 심각하니
 아마도 조흔집은 공부쪽의 집이로다
 동산이 주산이요 사슈가 황디슈다
 용산이 빅호되고 문슈가 청용이라
 소왕의 만세기랄 듀공의 장한도덕
 조흔터 딱아니아 디가랄 일우시니
 오흥으로 축초박고 인의예지 기둥서워
 삼강령 디령언고 팔조목 도리거러
 육십스괴 썩바니아 기기연목 거러노오
 삼씩팔십 스효슈로 초초로 산즈미즈
 오실토로 날기언고 티국으로 기와올니
 일월성신 창을삼아 낙귀하마 단청하니
 어와 조흘시고 이런집 쏘잇난가
 삼팔목이 동문이오 사구금이 셔문이오
 일육슈가 북문이오 이칠화가 남문이라
 인문을 능히열고 의로랄 크게딱가
 예약문물 가초두고 오신손님 밧제하니
 공장이 늙흔고디 지기뉘기 옛모를고
 풍호무우 영귀인은 당상의 올나잇고
 누황춘풍 단포사는 실중의 드러잇고
 국장목 피령등다 자로중궁 민자건은
 문안의 드러잇고 그나은 팔십제즈

삼천인을 널리이른소야 고금천하 농흔집은
이집밧게 쏘잇난가 집구경 가랴거든
이집초즈 가즈셔라 침침즈야 가지말고
명명백일 가즈셔라 정도가 탄탄하니
초즈가기 쉽건마는 구인손이 농하시니
너머가기 어렵도다 아마도 우리등이
초즈가 보오이라 가다가 저물거든
회암의 드러즈고 명도에 길을몰어
이청의 비랄씨워 넘계로 나아가서
광풍제월 발은고딧 공중누각 구경후의
지음으로 도라드러 아성공탁 구경하고
아성공탁 구경후에 종성공탁 구경하고
종성공탁 구경후의 술성공탁 구경하고
술성공탁 구경후의 복성공탁 구경하고
복성공탁 구경후의 황단을 바라보니
만세춘광 즈진고딧 하마호면 몰르다니
궁장이 천인이라 앙지미고 어이하랴
침지직전 아득한딧 호년지후 문의로다
불원철이 왓다가서 이집구경 다뭏하여
전공가석 되오리라 공후일괴 하단말가
어화 벗님니야 집구경 하랴거든
초초로 권념하며 이집초즈 보오이라
쑈

[현대역]

어와 벗님네야 집 구경 가자스라
집이야 많다마는 찾아갈 집 다르도다
봉황대(鳳凰臺)1 황학루(黃는鶴樓)2는 속사(俗士)3가 구경할 곳이고
낙성대(樂成臺)4 악양루(岳陽樓)5는 속객(俗客)이 구경할 곳이라
우주(宇宙)에 비겨서서 대가(大家)를 생각하니
아마도 좋은 집은 공부자의 집이로다
동산(東山)6이 주산(主山)이요 사수(泗洙)7가 횡대수라
용산(隴山)8이 백호(白虎)9 되고 문수(汶水)10가 청룡(靑龍)11이라
문명(文明)한 산수간에 소왕(素王)12의 만세기(萬世基)를
주공(周公)13의 장한 도덕 좋은 터 닦아내서
번리(藩籬)14를 배포(排布)하고 대가(大家)를 일우시어
오행(五行)으로 주춧돌 박고 인의예지(仁義禮智)로 기둥 세워
삼강령(三綱領)15 대량(大樑) 얹고 팔조목(八條目)16으로 도리17 걸어
육십사괘(六十四卦)18 뽑아내어 개개(箇箇) 연목(椽木)19 걸어 놓고
삼백팔십사효수(三百八十四爻數)20로 차례로 산자(橄子)21 매자
우깃토로 날개 얹고 태극(太極)22으로 기와 올려
일월성신(日月星辰) 창을 삼아 낙구하마(洛龜河馬)23 단청(丹青)하니
어와 좋을시고 이런 집 또 있는가
삼팔목(三八木)24 동문이요 사구금(四九金)25이 서문이요
일육수(一六水)26가 북문이요 이칠화(二七火)27가 남문이라
오십토(五十土)28는 중문이라 인문(仁門)을 능히 열고
의로(義路)를 크게 닦아 예악문물(禮樂文物) 갖추어 두고
오신 손님 받게 하니
궁장(宮牆)29이 높은 곳에
저기 누구 옛 일을 모를가 풍호무우영귀인(風乎舞雩詠歸人)30은
당상(堂上)에 올라 있고 누향춘풍단표사(陋巷春風簞瓢師)31는
심중에 들어 있고 국장목 피령등다32
자로.중궁.민자건(子路.仲弓.閔子騫)33은 문안에 들어 있고
그 나머지 팔십 제자 삼천인을 널리 이룰소냐
고금천하 높은 집은 이 집 밖에 또 있는가
집 구경 가려거든 이 집 찾아 가자스라
침침자야 가지 말고
명명백일 가자스라
정도(正道)가 탄탄하니 찾아가기 쉽건마는
구인산(九仞山)34이 높았으니 넘어가기 어렵도다
아마도 우리들이 찾아가 보리라
가다가 저물거든 회암(晦庵)35에 들어 자고

명도(明道)36의 길을 물어 이천(伊川)37에 배를 띄워
염계(濂溪)38로 나아가서 광풍제월(光風霽月)39 밝은 곳에
공중누각(空中樓閣) 구경 후에 지음(知音)과 돌아들어
아성공택(亞聖公宅)40 구경하고 아성공택 구경 후에
종성공택41 구경하고
종성공택 구경 후에
술성공택(述聖公宅)42 구경하고 술성공택 구경 후에
복성공택(復聖公宅)43 구경하고 복성공택 구경 후에
행단(杏壇)44을 바라보니 만세춘광(萬歲春光) 잦은 곳에
하마 하면 보련마는 궁장(宮牆)이 천인(千仞)이라
앙지미고(仰之彌高)45 어이하랴 첨지재전(瞻之在前)46 아득한데
홀연지후 문묘로다 불원천리 왔다가서
이 집 구경 다 못하면 전공가석(前功可惜) 되오리다
공휴일케(功虧一簣)47 한다는 말인가 어와 벗님네야
집 구경 하려거든
차차 권념하며
이 집 찾아보오이다.
끝.

[각주]

- 1) 봉황대(鳳凰臺) : 중국 금릉에 있는 조망대. 이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나오는 시구. 곧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 2) 황학루(黃鶴樓) : 중국 호북성 무창현 양자강 강변에 있는 누각.
- 3) 속사(俗士) : 속의 선비.
- 4) 낙성대(樂成臺) : 미상. 이상보는 고소대(姑蘇臺)의 잘못으로 해석함. 고소대는 춘추시대에 오나라 부차(夫差)와 서시(西施)가 놀았다는 곳.
- 5) 악양루(岳陽樓) : 국 호남성 악양현에 있는 누문
- 6) 동산(東山) : 중국 노(魯)나라에 있는 산 이름. 맹자(孟子)의 진심장(盡心章)에 “登東山而小魯”라고 하였음.
- 7) 사수(泗洙) : 공자의 고향에 흐르고 있는 강 이름.
- 8) 용산(隴山) : 중국 하룡(河隴)에 있는 산 이름.
- 9) 백호(白虎) : 사신(四神)의 하나. 곧 서방신(西方神).
- 10) 문수(汶水) : 중국의 태산에서 흐르는 물.
- 11) 청룡(靑龍) : 사신(四神)의 하나. 곧 동방신(東方神).
- 12) 소왕(素王) : 군주의 위(位)가 없으면서도 군주의 덕이 있는 사람.
- 13) 주공(周公) : 이름은 단(旦). 주문왕(周文王)의 아들이고 무왕(武王)의 아우로, 무왕의 아들 성왕(成王)을 잘 보필하여 예악정치(禮樂政治)를 실현했던 사람.
- 14) 번리(籓籬) : 울타리.
- 15) 삼강령(三綱領) : 유학의 세 강령으로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혹은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
- 16) 팔조목(八條目) : 유교의 수행 조목. 곧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 17) 도리 : 집의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얹히는 나무. 도리 위에 서까래를 얹음
- 18) 육십사괘(六十四卦) : 팔괘(八卦)를 이리 저리 맞추어 만든 64개의 괘.
- 19) 연목(椽木) : 집의 서까래.
- 20) 삼백팔십사효수(三百八十四爻數) : 주역(周易)에서 괘를 설명하기 위한 부호.
- 21) 산자(榦子) : 지붕 서까래 위나 고물 위에 흙을 받치기 위하여 엮어 끼는 나뭇개비.
- 22) 태극(太極) : 우주 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
- 23) 낙구하마(洛龜河馬) : 하도낙서(河圖洛書)를 말함. 하도는 복희씨 때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나타났다는 그림. 낙서는 우왕 때 낙수에서 나온 거북이의 등에 있었다는 글.
- 24) 삼팔목(三八木) : 하도낙서(河圖洛書)에 나오는 방위를 오행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
- 25) 사구금(四九金) : 하도낙서에 나온 방위. 곧 서(西).
- 26) 일육수(一六水) : 하도낙서에 나온 방위. 곧 북(北).
- 27) 이칠화(二七火) : 하도낙서에 나온 방위. 곧 남(南).
- 28) 오십토(五十土) : 하도낙서에 나온 방위. 곧 중(中).
- 29) 궁장(宮牆) : 궁성(宮城)
- 30) 풍호무우영귀(風乎舞雩詠歸人) : 무우에서 놀고 시를 읊으며 돌아간다는 뜻으로 자연을 즐기는 것

을 말함. [논어]에 나온 공자의 말. 곧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詠而歸”에서 나온 말.

31) 누항춘풍단표사(陋巷春風簞瓢師) : [한서(漢書)]에 나온 말. 곧 “顏淵 簞食瓢飲 在於陋巷”

32) 국장묵 피령등다 : 미상

33) 자로.중궁.민자건(子路.仲弓.閔子騫) : 공자의 제자들.

34) 구인산(九仞山) : 아주 높은 산.

35) 회암(晦庵) : 송나라 대유학자 주자(朱子)의 호

36) 명도(明道) : 북송의 유학자 정호(程顥). 정호의 아우 이(頤)가 형의 묘에다 ‘明道先生’이라고 기록한 데서 나온 말.

37) 이천(伊川) : 북송의 유학자 정이(程頤). 이수(伊水)의 언덕에 살았기에 이천선생(伊川先生)이라고 칭했음.

38) 염계(濂溪) : 호남성 염계에 살았던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호.

39) 광풍제월(光風霽月) : 송의 황정견(黃庭堅)이 주돈이(周敦頤)의 인격을 평해서 한 말로,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과 같고 비 갠 뒤에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는 의미.

40) 아성공택(亞聖公宅) : 아성(亞聖)인 맹자(孟子)의 집

41) 종성공택 : 송성공택(宋聖公宅)을 오인한 듯함. 송성(宋聖)은 송의 유학자 주자(朱子).

42) 술성공택(述聖公宅) : 자사(子思)의 집

43) 복성공택(復聖公宅) : 안자(顏子)의 집

44) 행단(杏壇) : 학문을 닦는 곳

45) 양지미고(仰之彌高) : 우러러 보아도 미칠 수 없도록 높은 것.

46) 첨지재전(瞻之在前) : 앞을 멀리 바라본 것

47) 공휴일궤(功虧一簣) : [서경(書經)]의 “爲山九仞功虧一簣”에 있는 말.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